



“뎀벤저스와 싸우는 열혈 변호사 기대돼요”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 고현정(47·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새 수목극 ‘리턴’ 제작발표회에서 캐릭터의 열정으로 한파를 녹이겠다고 밝혔다. tvN ‘디어 마이 프렌즈’ 이후 약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 그는 이번에 ‘열혈’ 변호사 겸 TV 법정소 진행자 최자혜를 연기한다.

‘리턴’은 의문의 여성 시신이 발견된 후 4명의 상류층 인사가 용의자로 떠오르고, 최자혜 변호사가 독고영(이진욱 분) 형사와 함께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내용이다.

고현정은 “법 집행 과정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피해자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하는데 소위 기독교 세력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세상의 법을 바로잡지는 못해도 내가 받은 부당한 처사는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갖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원하는 만큼의 벌을, 제도권 밖에서 내리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묻게 된다”며 “시청자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인 작가의 작품을 선택한 데 대해 “대본을 읽었을 때 신인이라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다. 그리고 신인견도 없었다”며 “저 역시 형사 역할은 해봐도 변호사 역할은 처음이라 서로서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고현정은 또 “SBS가 그동안 선보인 드라마들을 포함해 최근에 장르극이 많지만, 우리 드라마는 또 다른 신선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장르극에서는 항상 한 사건의 여러 면을 짚지만, ‘리턴’은 그것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이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고현정은 지난해 독립영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 이후 재회한 이진욱에 대해서는 “영화 때도 연기가 굉장히 담백했다. 쓸데없는 것에 빠져 연구한다든지 그런게 없이 확실하고 ‘심플’하다”며 “이번 드라마에서도 앞뒤가 맞는 연기를 보여준다. 현장의 활력소이기도 하다”고 칭찬했다.

SBS 수목극 리턴 최자혜 역 고현정

특별출연 한은정·이진욱 등 연기호흡

이진욱 “그동안 심려 끼쳐 죄송” 사과

찬했다.

이진욱은 작품 소개에 앞서 자리에서 일어나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며 “기회가 안 닿았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는 복귀 소감에 대해 “오랜만의 작품이라 긴장도 되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지는 부분도 있다. 오로지 제 캐릭터, 주변 배우들과의 조화에만 집중해서 촬영할 자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연기하는 현장은 처음”이라며 “이 느낌 그대로 끝까지 촬영을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욱은 한때 촉망소년이었으나 한 번 쫓긴 사건은 반드시 해결하는 형사로 성장한 독고영을 연기한다. 그는 최자혜(고현정 분) 변호사가 TV 법정 소에서 독고영의 치부가 있는 사건을 다시 세상으로 꺼내며 그와 악연을 맺게 되지만, 상류층 치정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결국 협력하게 된다.

이진욱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소년병 출신이지만 과거에 지은 죄를 반성하는 의미로 정의를 구현하는 형사가 돼서 나쁜 놈들을 때려잡는다”며 “최자혜 변호사를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독립영화에 이어 재회한 고현정에 대해서는 “호흡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며 “영화 찍을 때도 선배님 연기를 보고 감탄했는데 이번에 또 다른 모습



으로 제게 영감을 주시더라”고 말했다.

고현정과 이진욱 외에 정은채, 신성록, 박가용, 봉태규 등이 출연한다. 한은정은 특별출연으로 극 초반을 이끈다. 살해당한 재벌 3세의 내연녀 염미정을 연기하는 한은정은 최근 ‘예능 신성’답게 이날도 입담을 뽐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저는 짧게 나오지만, (캐릭터가 살해된 후) 여행가방 안에도 들어가는 등 고생도 했다”며 “대본이 재밌어서 고민하지 않고 출연했다.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17일 밤 10시 첫 방송. /연합뉴스

강호동·정용화 ‘토크몬’ 산뜻한 출발



첫회 시청률 2.7%...정영주·임현식 등 출연 입담 과시

강호동이 5년 만에 진행하는 토크쇼로 관심을 끈 올리브 ‘토크몬(사진)’이 2.7%의 시청률로 출발했다.

16일 올리브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50분 올리브와 tvN에서 동시에 방송한 ‘토크몬’ 첫회 시청률(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은 두 채널 합산 기준 평균 2.7%, 순간 최고 3.4%로 집계됐다.

첫회에서는 강호동의 주도 아래 데뷔 54년 만에 첫 예능 나들이를 한 배우 박인환을 비롯해 입담 넘치는 배우 임현식과 정영주, 트로트 가수 신유 등 기존 예능에서 자주 보기 어려웠던 인물들이 게스트로 등장했다.

첫회 방송 후 시청자들은 ‘오랜만에 보는 토크쇼라 오히려 신선하다’는 호평과 ‘그냥 과거 ‘강심장’ 같다. 게스트 소개가 길고 산만하다’는 비판을 함께 내놨다.

한편, SBS TV ‘동상이몽2-너는 내운명’은 7.8%~8.5%(이하 닐슨코리아 전국), 10주 만에 방송을 재개한 KBS 2TV ‘안녕하세요’는 4.5%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강동원·김태리 듀엣 듣는다

영화 ‘1987’ OST 음원 발매

CJ엔터테인먼트는 6월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의 OST(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음원을발매했다고 밝혔다.

OST에서는 영화의 엔딩곡인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을 강동원과 김태리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

이한열 합창단이 부른 ‘그날이 오면’도 실렸다.

장준환 감독은 ‘가리워진 길’을 엔딩곡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가사처럼 우리의 앞길도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사진을 보고 에너지를 느끼듯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1987’의 영화음악은 ‘최종병기 활’과 ‘명량’ 등을 작업한 김태성 음악감독이 만들었고, 미국 워너브러더스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광주MBC 뉴스 투데이 50 억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빛날 스페셜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발레교습소 백조클럽(재)	50 로봇이 아니야(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UHD 한식의 마음	50 육기사(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재)		00 12 MBC 뉴스 20 좌중우돌 만국유람기(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특집다큐 기록의 가치 편역(재)		15 하하랜드 스페셜	55 닥터 365
2	40 특집다큐 시니어 도전기, 인턴	00 생활의 발견 5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20 문화사색(재)	00 뉴스브리핑
3	30 행복한 지도(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10 뽀글이 사랑해 4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어제스트	
4	00 4시 뉴스집중		1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0 팔도발상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2 15 절리고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재)	00 5 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생애 웬수들 (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발상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애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0 KBS광주 연중기획 남도 스페셜 20 UHD 한식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스페셜	55 하하랜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40 신년특집 80세 청춘의 비밀(재)			
10	35 KBS 뉴스라인	00 육기사	00 로봇이 아니야	00 리턴
11	05 문화의 향기 5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김성민의 영수증	10 라디오스타 1~2부	10 싱글라이프 1~2부
12	50 인간극장 스페셜(재)	20 세상의 모든 다큐	4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삼국지 북벌>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뽀뽀뽀 뽀로로 08:00 당동명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재) 08:45 한글이 야호2 09:00 똑딱맨 09:15 두다다쿵(재) 09:30 플랑	09:40 글로벌 앵버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수제 어묵과 어묵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e 12:45 EBS 초대석(재) 13:40 미래강연 Q(재)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마사와 곰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16:30 한글이 야호(재)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1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7:30 강철소방대 피아로보 17:45 뽀뽀뽀뽀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1~4 19:00 몬카트(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화산섬의 비밀 19:30 EBS 뉴스 19:50 장수의 비밀 20:40 다큐 오늘 (산골 마을 총리의 겨울)	20:50 세계테마기행 <알수록 신비한 남미 지질 이야기 -자구의 박동 화산> 21:30 한국기행 <우리 은퇴하면 뭐할까요 3부 바다야 놀자> 21:50 EBS 다큐프라임 <늑상동물 3부 짝짓기> 22:45 극한직업 <수제 주방용품 제작-칼과 도마>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e 24:30 미래강연 Q <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7일(음 12월 1일 己酉)

<p>子</p> <p>48년생 작은 것은 내버려두고 자연히 해결되니라. 60년생 파격적인 방도로 전환해 보는 것도 괜찮다. 72년생 판세가 심상치 않으니 제일 먼저 수습부터 해야 하는 마당이다. 84년생 정확히 확인한 후에 처리함이 좋다. 행운의 숫자 : 52, 59</p>	<p>午</p> <p>42년생 아니 되는 것을 강행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54년생 주체에 따라서 전망지치가 될 수도 있니라. 66년생 가까운 이로부터 새어나가고 있다. 78년생 한 곳에 집중시켜야 한다. 90년생 영향력 하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67, 73</p>
<p>丑</p> <p>49년생 점진적인 발전 속에 일시적인 정체도 보인다. 61년생 절대적이라고 상정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73년생 대체로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주변의 기류에 영향을 받는다. 85년생 강력한 기득권의 횡포 앞에서 휘둘릴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7, 71</p>	<p>未</p> <p>43년생 제반사가 지연되고 결과도 늦어질 수 있다. 55년생 결만 되고 포기하면 실수하게 된다. 67년생 오는 이 막지 말고 가는 이 불잡지 말자. 79년생 상당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국면에 놓여있다. 91년생 정도를 견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1, 64</p>
<p>寅</p> <p>50년생 뜻하는 바에 임하려면 상당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62년생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 74년생 면밀하고 변통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86년생 결연한 의지로 분명한 언행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35, 15</p>	<p>申</p> <p>44년생 단편적이거나 임시적인 것은 판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6년생 제반 사정을 차치하고 일에 몰두하는 것이 좋다. 68년생 실익이 없다면 기여를 필요 없다. 80년생 일단 수용하고 보는 것이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62, 06</p>
<p>卯</p> <p>51년생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그치게 된다. 63년생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75년생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몰려오고 있는 형상이다. 87년생 더불어서 어울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5, 35</p>	<p>酉</p> <p>45년생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 57년생 치밀하지 않으면 헛수고만 반복될 뿐이다. 69년생 체면치레는 소모적인 국면으로 이끌 것이다. 81년생 일일이 따지자면 번거롭겠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행운의 숫자 : 79, 85</p>
<p>辰</p> <p>52년생 자연히 해결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하던 일이나 계속 진행하라. 64년생 막연한 풍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76년생 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것이다. 88년생 발전으로 이끄는 새로운 기운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7, 24</p>	<p>戌</p> <p>46년생 체면 차리려다가 심하게 꼬이는 수가 있다. 58년생 차선책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70년생 전폭 기대했다가 매우 허탈해지는 형상이다. 82년생 예상치 못했던 혼란이 따르듯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8, 67</p>
<p>巳</p> <p>53년생 우선 가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불이다. 65년생 노파심일랑 던져 버리고 잠자코만 있으면 된다. 77년생 지난날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면 오늘 영광을 맞이하게 된다. 89년생 상대로부터 인정받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60, 56</p>	<p>亥</p> <p>47년생 빈틈을 보인다면 한 순간에 기피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59년생 흥정을 잘 붙인다면 두둑한 사례가 따를 것이다. 71년생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되겠다. 83년생 흑과 백이 명암을 분명히 하리라. 행운의 숫자 : 08, 31</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